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김성중(윤현영), 이필레, 이승이, 강영성(신화순), 강평화, 김광호, 김기택(배숙자), 김병을(이영숙), 김윤주, 김정대(유은자), 김종선(박영숙), 김현구(서재희), 박금업, 박부웅(최귀남), 박영애, 박혜진, 백성원(안지영), 서진화(최봉순), 신세균(유미란), 오동호(강소영), 유승용,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영화), 윤병호(양영옥), 윤순한(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이창규(곽정순), 이형록, 이희재, 임만순(서영숙), 임정빈, 정기성, 정옥순, 정은전, 채희춘(황영옥), 최기훈(정계숙), 최성현(윤정자), 최성환, 최정희, 하세련(김기안), 현웅건(이은옥), 홍순중.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 이필레, 최유경, 강영성(신화순), 김경업, 김병을(이영숙), 김성옥, 김준구(이소은), 김태수, 박금업, 박영순, 박정현, 백성원(안지영), 손정아, 송다해, 신세균, 심 찬, 유은자, 윤병호, 윤순한(민옥희), 윤영준, 윤조훈(이은숙), 윤혜진, 이창규(곽정순), 이창교, 이형록, 임만순, 정기성(심순숙), 정옥순, 최기훈(정계숙), 최봉순, 최성환, 최순재, 최정희, 하세련, 현웅건, 이은옥, 황영옥, 바울남전도회, 베드로남전도회.

♠ **감사헌금**  
이필레, 강준식(김정연B), 김길자, 김병을(이영숙), 김순옥, 김양순, 김재인(이강우), 김정자, 맹관순, 민옥희, 박부웅(최귀남), 석형기(이희순B), 신정순, 안아용, 유은자, 이근자, 이성훈(최애숙), 이종문, 전영선, 채명업, 정영심 .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김민성, 김민혁, 김정훈,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이춘호, 정옥순, 주성락, 최봉순, 최선미, 무 명.

♠ **월정헌금**  
류영철(김청숙).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44주 : 요한복음 7장 - 사도행전 8장			
주 일	요한복음 7 - 11장		
월요일	요한복음 12 - 14장	목요일	요한복음 21 - 사도행전 2장
화요일	요한복음 15 - 17장	금요일	사도행전 3 - 5장
수요일	요한복음 18 - 20장	토요일	사도행전 6 - 8장

사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 역 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휘 자		할 켈 루 아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예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고평훈
	협력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문복
협 력 교 회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맥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 력 단 체		제주 대광장로교회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10. 26. 주일 예배 설교

###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2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1) 고린도교회에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는 비방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오해하고 멀리하여 비방하고 시기 하는 것입니다.  
2) 고린도전·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며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교회로 속히 오겠다는 바울이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인격적인 신실함과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유대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즉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중하지 않고 은혜롭지 못하게 행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이었습니다.  
3)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것은 마게도나에 복음의 문이 열려 복음사역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에 문제에 대하여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며, 유대인의 전통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증거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행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헐뜯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변론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며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2. 과연 이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1) 먼저 사도바울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담대하였습니다. 결코 불의와 그 모든 불법,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멀리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리에 서서 정면 대결하면서 당당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일에 대하여는 담대하였으나 사람에 대하여는 담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72편 4절에서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3) 사실 다른 자들의 비방을 십자가로 알고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있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사도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오해와 시기와 질투에 대하여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더욱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복음 증거의 사명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더욱 깊이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 1)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항상 진실 된 모습, 한결같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두어 모든 곳을 밝히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참된 진리와 함께 하며 진리를 자랑하며 온 천하에 드러내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3) 물론 이렇게 행할 때 수많은 비판도 압박도 있겠지만 그 진리의 빛을 보고 모어드는 의의 정병들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빛을 비추는 자들에 대하여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빛을 드러내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깊이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매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참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44

2014.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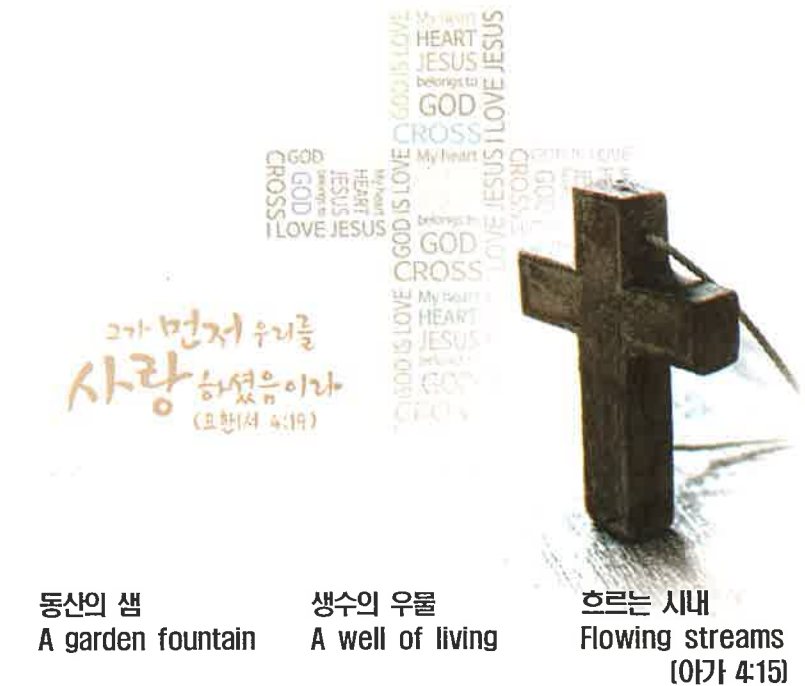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http://www.sunghyeon.or.kr)

순서		1 부		2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11월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 도	
1주( 2일 )	최상걸 집사	윤병호 장로	서재희 권사	배경철 장로	최상걸 집사	유옥자 권사		
2주( 9일 )	박종삼 집사	천세력 장로	최귀남 권사	이필도 장로	윤영준 집사	강은미 집사		
3주(16일)	최성현 집사	강영성 장로	전준복 권사	최기훈 장로	최성현 집사	김춘화 집사		
4주(23일)	유현호 집사	김병률 장로	임영덕 권사	임만순 장로	유현호 집사	민옥희 집사		
5주(30일)	김성욱 집사	최기훈 장로	심순옥 권사	이태일 장로	장운주 집사	박복래 집사		
예배안내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